



제목	Osman's Dream: The History of the Ottoman Empire 1300-1923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Basic Books
발행일	2007. 8. 1.
저자	Caroline Finkel
출판도시	New York
페이지수	674
ISBN 또는 ISSN	978-0465023974

내용 요약

『오스만의 꿈: 1300~1923년까지의 오스만 제국사』는 오스만인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간주한 서구의 편견을 깨고 오스만 역사의 역동성을 강조한 책이다. 오랫동안 터키에서 거주했던 저자 핀켈은 터키가 아나톨리아에서 제국의 꿈을 가진 시기부터 1차 세계대전으로 잿더미 위에 공화국이 건설되는 시기까지 오스만이 어떻게 제국을 건설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 오스만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는 아랍인, 쿠르드족,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유대인, 불가리아인, 보스니아인, 알바니아인에 대한 서술도 포함시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었다. 저자는 대중들이 오스만 제국의 성장, 쇠퇴, 몰락이라는 단순한 구조로 이해하도록 쉬운 글을 쓰려고 했기 때문에 현대의 지명, 지도, 삽화, 사진 등을 첨가하여 이해를 높였지만, 평이한 구조에 머무른 점이 아쉽다. 또 저자는 1890년의 아르메니아인 대량학살을 언급하면서 대중적으로 민감한 현대의 인종 청소나 집단학살에서 국가 폭력과 대중의 저항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책은 총 16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1장은 ‘동등한 것 중의 첫 번째’, 2장은 ‘분열된 왕조’, 3장은 ‘제국의 환상’, 4장은 ‘충실한 술탄’, 5장은 ‘세계의 왕국의 소유자들’, 6장은 ‘정주한 술탄’, 7장은 ‘파당의 정부’, 8장은 ‘군사령관들의 복수’, 9장은 ‘귀족의 지배’, 10장은 ‘호트러진 제국’, 11장은 ‘태평의 위협’, 12장은 ‘지방의 권력’, 13장은 ‘새로운 질서에서 재질서로’, 14장은 ‘정체성의 위기’, 15장은 ‘이슬람 제국’, 16장은 ‘고요 전의 폭풍’을 서술하였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18세기 이후 오스만 군대의 붕괴와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갈등을 오스만의 쇠퇴 원인으로 보았다.